

# 한은 금통위, 11일 기준금리 결정

### “동결 가능성 높아”... 국내 경제 심각한 위기 상황·대외 불확실성 만만치 않아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를 열고 기준금리 결정에 나선다. 8일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시장 안락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미국 대선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고, 대내적으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에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3일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한은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묶어놓고 당분간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수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수출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경기지표가 10월에 제시된 경제전망 경로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의 높은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미국 금리인

상을 앞두고 한은 기준금리 실효화한 상승에 대한 우려 역시 재차 강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운선 LG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할 전망이다”이라며 “집단 담보대출 확대와 이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로 기준금리의 동결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한은의 동결 기조가 적어도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다음, 지급과 같은 경제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이 추가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다. 신일 현대증권 연구원은 “한은은 경

제성장 동력 약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 미국의 완만한 속도의 금리 정상화 등 대내외 변수 변화에 대해 일정기간 확인한 후 내년 상반기에 1.00%로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12월 이후, 즉 연초 금리 하락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미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국내 4분기 지표가 확인되며 경기 우려가 확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경제팀이 구성된 뒤 부양책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

## 해외 큰 손들, 국내 투자 쉬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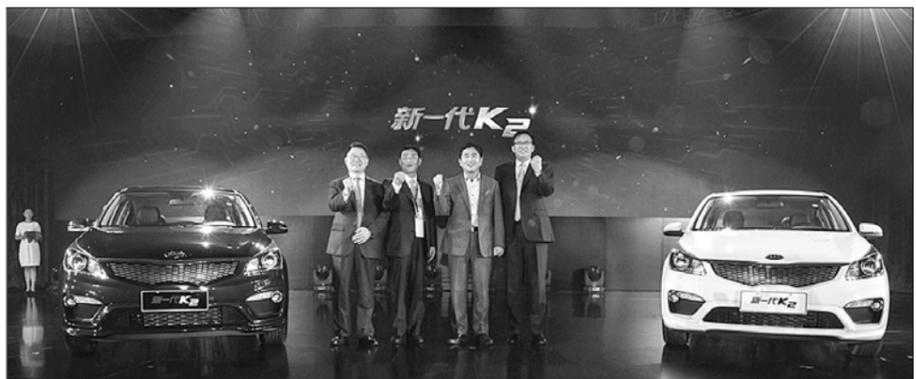
###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간소화 통해

앞으로는 역외펀드의 별도 지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가 역외펀드 실제소유자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간소화 해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을 제고 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역외펀드란 해외에서 조성된 펀드가 국내에 투자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국내 금융회사가 실제 소유자를 확인토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고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는 실제소유자 파악을 위해 1~3단계 확인 절차를 거친다. 각 단계에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1단계에서 25%이상 지분 소유자, 2단계에서 최대출자자·과반수 선임 주주, 3단계에서 법인·단체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좌 개설시 제

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 지분정보를 불포함 해 있어 현 실효적으로 지분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고, 역외펀드 대다수는 대표자가 법인(운용사)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존 3단계 과정을 거친 뒤에도 지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를 역외펀드 실제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역외펀드 실제소유자 확인 간소화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펀드 판매사인 금융회사가 1차적으로 고객확인을 시행 중이고, 자산운용에 따른 자금 세탁위험은 펀드의 특성상 투자자가 직접 운용을 지시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상기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팀장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이 제고되고 실제 소유자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국내 금융 회사의 부담도 완화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 등 각 분야별 준법감시인들과 최근 자금세탁관련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보다 감도 높은 관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스

## BMW, 전기차 판매 10만대 돌파

BMW그룹은 BMW i 브랜드 출시 3년 만에 전기차 모델 1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1월 전세계에 처음 소개된 BMW i는 BMW 그룹의 진보적 기술력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브랜드다. 현재까지 총 10만대 이상의 순수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이 고객에게 인도됐다. 순수 전기차 모델인 BMW i3는 단일 모델로 6만대 이상 팔렸고, 그룹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모델인 BMW i8은 2014년부터 1만대 이상, BMW i 퍼포먼스 모델명으로 판매 중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약 3만대가 팔렸다. 하랄드 크루거 BMW그룹 회장은 “BMW i는 그룹에서 지금과 동일하게 혁신의 최전방에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선보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BMW i의 성공을 바탕으로 또다른 혁신인 자율주행 기술을 ‘BMW iNEXT’라는 이름 아래 선보이며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BMW 그룹은 전기차만을 위한 별도 사업부문을 운영해 현재까지 BMW i3를 포함해 총 7종의 전기자동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오는 2017년 뉴 MINI 클럽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BMW 그룹의 모든 브랜드에 순수 전기차 모델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국내에는 BMW i3 및 i8을 출시했다. 앞으로 다양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뉴스



기아자동차 중국 합작법인 동평위에다기아는 7일(현지시간) 중국 후난성 장자제에서 김건 총경리 등 기아차 관계자와 기자단, 딜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전략 소형차 '신형 K2'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가졌다. 동평위에다기아 운기능 판매본부 전무, 양위정 부총경리, 김건 총경리, 리우홍 부총경리가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기아차, 중국 전략 소형차 '신형 K2' 출시

### 20~30대 고객 집중공략 판매확대 기대... 실내공간 증대·연비향상 등

기아차의 중국 전략 소형차 '신형 K2'가 공개됐다. 기아차 중국 합작법인 동평위에다기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후난성 장자제에서 신형 K2 공식 출시 행사를 열고 8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출시된 이후 5년 만에 2세대 모델로 태어난 신형 K2는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생한 현지 전략 소형차다. 김건 동평위에다기아 총경리 부사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동급 최고의 상품성을 확보한 신형 K2가 중국 소형차 시장에서 다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아차는 내년에도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신차를 바탕으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형 K2는 ▲역동적이고 세련된 내외장 디자인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 ▲개선된 동력 및 주행성능 ▲초고장력 강판 확대 적용 ▲애플 카플레이, 스마트 트렁크 등 최첨단 편의사양 적용으로 20~30대 고객 선호하는 최상의 상품성을 갖추도록 했다.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중국 고객 특성을 고려해 이전 모델 대비 전장 22mm, 축거(휠베이스) 30mm를 증대시켰

다. ▲최고출력 100마력의 카파 1.4 MPI ▲최고출력 123마력의 감마 1.6 MPI 등 두 가지 가솔린 엔진 라인업에 6단 자동·수동 변속기를 새롭게 탑재했으며 저중속 실용영역에서의 동력 성능 강화, ISG 시스템 탑재로 실주행 연비를 향상시켰다. 초고장력 강판을 41%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기아차는 이번 선보이는 4도어 모델은 시작으로 내년에는 5도어 모델 등을 새롭게 라인업에 추가해 연평균 18만대의 신형 K2를 판매한다는 목표다. /뉴스

## 넥슨, 지스타서 신작 35종 게임 선보여

넥슨이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에서 역대 최대인 35종의 게임을 선보인다. 넥슨은 8일 서울웨스트진조선호텔에서 '지스타 2016 프리뷰' 기자회견을 열고 “지스타에서 선보일 작품으로 자체개발 신작 18종(모바일 16종·PC 온라인 2종)과 퍼블리싱 신작 17종(모바일 12종·PC온라인 5종)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이번 지스타 행사에서 창립 초기 슬로건인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즐거움의 세계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은 ‘라이프 비욘드(Life Beyond)’를 메인 테마로 잡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00부스의 넥슨관은 각각 150부스 규모의 PC온라인게임존과 모바일게임존, 다양한 신

작 게임 쇼케이스와 대전 및 e스포츠 이벤트가 진행되는 100부스 크기의 '슈퍼 스테이지'로 마련한다. PC온라인게임존에서는 6종의 PC온라인 게임을 시연 버전으로 선보인다. 모바일게임존에서는 '다크어벤저' 시리즈를 개발한 블리언게임즈의 차기작 '다크어벤저 3'을 비롯해 레고 시리즈의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모바일 RPG(역할수행게임) '레고 퀘스트 앤드롤러드' 등이 준비됐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중앙 통로에 위치한 '미디어홀'과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다수의 개발 신작 16종의 영상을 선보인다. 슈퍼 스테이지 부스 외벽 공간에는 네코제(넥슨 콘텐츠 축제)와 넥슨 주요 게임 공식 굿즈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마련된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